

48. 마르코 복음

마르코 복음서는 마태오와 루카가 참조한 일차 사료이기에 원초적 복음서로 불립니다. 마르코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자 바오로의 협조자로 전하지만 팔레스타인 밖에 사는 이방 그리스도인이 자기 공동체를 대상으로 70년경에 집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언어와 표현은 매우 단순하고 문장 구조는 원시적입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크게 예수님의 갈릴래아 선교를 다루는 전반부(1-9장)와 예루살렘 선교를 다루는 후반부(11-16장), 그리고 둘을 잇는 예루살렘 상경기(10장)로 나뉩니다.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동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이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선교 활동을 펼치시며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 이후부터는 당신의 수난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후반부는 예수님의 화려한 예루살렘 입성 장면으로 시작하지만 수난 이야기(14-15장)를 아주 길게 다룹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방인 백인대장의 메시아 고백은 복음서의 절정입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전체의 1/3이상이 예수님의 수난을 강조하기에 마르코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선교 초기에 치유나 구마 기적 이후에 항상 메시아 비밀과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폭로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리시는데 이는 온갖 사이비 인물과 이설이 난무하는 혼란한 당시를 반영합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 특수 교육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신분과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수난과 부활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